

1122(화) 고린도전서 12–14장 성령으로 사는가?

고린도교회는 <영적 세계>에 자신만만했습니다.
개종 전에 몸 담았던 이교 집단에서 나름의 황홀경,
종교적 체험들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(12:2).
그들은 여전히 그런 영성을 원했습니다(14:1).

바울은 그들이 <성령> 알기를 원했습니다(12:1).
성령님과 영의 일, 영의 방식을 바로 알기 원했습니다.
영이 중요하다고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.
성도들은 영/혼/몸 전존재로 주님과 연합합니다.
한 성령을 모신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룹니다.

(14장/12:3,14,27,37–38)

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듯(12:12–16)
성도가 교회에 속하는 일은 옵션이 아닙니다.
특정 지체의 우열과 중요도를 논할 수 없듯
성도(은사) 각각이 다 중요합니다(12:17–23).

다양한 성도들,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.
서로 서로 필요하며, 서로 서로 돋습니다(12:24–31).
영의 일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덕스러우며
예수님의 성품인 <사랑>으로 드러납니다.
(12:7,14:1,31,33, 13–14장)

성도의 삶/은사/사역은 성령에 기인합니다.
인간의 노력이나 인격, 성숙도로 얻는 것이 아니라
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(12:11,18,24,28).
성도들이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,
성령께서 덕/품위/질서로 이끄실 것입니다(14:40).

나는 성도(성령)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?
① 성령이 나의 안팎을 꽉 채우고 계십니까?
② 내 삶이 공동체의 유익과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고린도전서 12–14장